

양계안테나



육계계열사들 직영농장 확대 농가들의 생존권 박탈 위기

1980년대 말 계열화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통해 육계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반면 계열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농가들간의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계열사와 농가들간의 계약관계로 갑과 을의 관계가 뚜렷해지면서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결국 농가들은 계열사들에게 종속되면서 주권마저 내 주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외국닭고기가 밀려들어오는 형국에서 농가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다. 계열사들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사육수수료까지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농가들과의 마찰은 심화되었다. 또한 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농가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과거에는 같은 동료였음에도 이제는 서로 적대관계로 만들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수입닭고기가 싸면 일부 계열사들은 수입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저 기업만 살아나면 그만이라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병폐가 양계산업에도 뿌리를 내린지 오래다. 기존 업체들은 물론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신생, 후발주자들이 어느 순간 도계장, 도계시설을 늘리면서 국내에는 이미 닭을 처리할 도계시설이 남아도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열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농가들만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본회에서는 모 계열사를 상대로 1인시위를 시작하였다. 더 이상 가다가는 모든 농가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이르면서 이를 막기위한 몸부림이 시작된 것이다. 집회장소는 프로야구가 진행되는 경기장 앞에서 시작되었다. 모 계열사가 후원하는 야구팀을 상대로 했지만 농가들의 어려움을 야구장을 찾는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모 계열사는 닭고기 소비 감소 및 생산량 증가 등으로 육계산업 관련 전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육시설로 육계 농가의 사육기회를 감소시키고 있어 육계생산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계열사들은 안정적인 닭고기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직영농장설립을 가속화 하고 있지만 이는 생산을 침범하는 농가들과의 선전포고라 해석할 수 있다. 금년부터 이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직영농장은 60만수 규모이다. 일부 다른 계열사들도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금년부터 대규모 사

육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회는 지난 7월 육계산업을 선도하는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농가와 계열사간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계열사 직영농장건립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영농장을 통해 육계를 생산, 공급을 자연스럽게 늘려가고 있다.

해당 계열사는 현재의 농장생산을 중단하거나 이를 일반 육계인에게 매각하고 도계, 가공, 유통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회는 육계인과 종계인들이 함께 오는 11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육계산업 발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기대한다.



46년간 농가와 함께한 월간양계 보다 다양한 정보로 양계발전에 기여

1908년 11월 최남선이 집필자로 참여한 최초의 잡지인 ‘소년’이 창간된지 100년이 넘었다. 이 잡지는 창간 23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지만 계몽잡지로 당시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한국잡지협회에 등록되어 출간되는 잡지는 약 4천여권에 이른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잡지들이 창간되고 폐간되면서 그 정통성을 유지하는 잡지는 그리 흔하지 않다. 매년 200여권의 신간 잡지가 새로 생기거나 폐간된다.

월간양계도 1969년 11월 당시 오봉국 한국가금협회(대한양계협회 전신) 회장의 노력하에 발간되었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한번의 결간 없이 46년간 이어올 수 있었다. 당시 오준석 농림부 축산국장이 창간사를 집필하였으며, 본문은 48페이지 광고는 단색 20, 컬라 6페이지로 발간되었다. 월간양계의 제호는 1970년 1월부터 서울대학교 윤석봉 박사가 쓴 필체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구독료는 1년에 1,000원(반년에 600원)이었으며, 1972년에는 발행부수가 1만부가 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이 기록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1997년 말 IMF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100여페이지가 되던 광고시장이 1/3로 줄어들면서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편집기술이 발달되면서 월간양계도 섹션별로 다양하게 꾸며지면서 독자들의 만족을 높여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양계분야 관련 잡지가 늘어나면서 광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양계산업이 규모화되면서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는 관계로 발행부수가 불가피하게 줄어들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1년 구독료는 1년에 7만원으로 늘었지만 발행부수는 5천부로 한때 1만부를 발행했을 때 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월간양계가 창간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 본다. 시대의 흐름에 최대한의 감각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회원농가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잡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계**